

텔레토비가 말했어요, "무신경한 어린이 프로그램, 이제 안녕~!"

— 어린이가 볼 수 없는 어린이 TV 프로그램,
그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노력 —

장유진

1. 서론

일찍이 무(無)에서 유(有)를 이뤄내며 고속 성장 사회를 살아온 우리에게 '분업', '분화'가 낯설지 않은 단어이다. 정보 산업 사회에 들어서면서 각 분야에서는 분업, 분화된 팀(Team)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따라서 이미 익숙한 단어라 할지라도 그에 충실해야 할 우리의 몫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업과 분화의 개념은 비단 경제, 산업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화, 매스 미디어, 학문 등에서도 그 효율성과 능률성을 인정 받고 있는데, 그것이 도출해내는 결과는 기대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분야에서건 효과적인 결실을 기대한다면 단연코 분화된 작업이 전제가 되는 시기인 것이다.

TV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프로가 모든 연령층, 계급층에 맞춰지는 것보다는 주부면 주부, 학생이면 학생, 회사원이면 회사원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분화 현상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즉 분화된 각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이 가지는 경제성, 효율성과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얻는 정보의 능동성이 인정을 받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TV 방송사들은 시간대 별로 시청 층을 구분하여 각 시청 층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열기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방송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이 대상 전문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1년 10월 8일, 한국여성민우회는 건전한 어린이 프로 제작 및 방송을 위한 '어린이 TV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와 더불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축소된 어린이 프로 방송 시간과 어린이 시간대 준수 의무 회피 및 방송 언어의 저질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이제는 어린이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안정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고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대한 청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되어져야 할 새로운 시각과 이해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한다. 세계와 미래의 주역이라는 거창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차지하는 어린이들의 역할과 소비가 그 비중을 더해 가는 요즘, 올바른 어린이들의 방송 선택과 시청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반성하고, 다시 계획해야 하는 것이다.

신문을 펼쳐보자. TV 방송 편성시간표를 보면, 대략 오후 4 시와 7 시 사이를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시간대로 잡고 있는데, 그나마도 완전한 어린이 시간대는 아니어서 중간 중간 어른들 대상의 프로그램이 끼어 들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중, 이것이 진정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이다. 이것은 TV 방송사들이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로는 어린이 TV 프로그램이 가지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990 년대 후반, 독일 출판계에서는 Kinder - und Jugend - literatur(아동 -, 청소년 문학)라는 새로운 분야가 발생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즉, 전(前) 시대의 아동, 청소년 서적처럼 어른들의 검열을 통해 추천되는 도서 뿐 만이 아니라, 새 시대의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해도 위험성이 없는 전문 아동 -, 청소년 도서의 출판과 보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시작된 아동, 청소년 문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도서 출판 분야를 넘어서서 대중 매체, 문화를 아우르는 영역에 걸쳐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논의는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들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는커녕, 그들이 자체적으로 생성해내는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일조차 버거워 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TV 라는 매체가 지니고 있는 아동, 청소년, 특히 아동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태만한 노력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TV 매체의 소비자 중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TV 는 그들에게 제공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물론, 어린이들이 시청 가능한 시간

대에 맞춰 그들이 볼 수 있는 어린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배치해 놓고는 있지만, TV 자체가 가지는 어린이 제작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다. TV 방송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만큼 부족 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얼마 전, 수입되어 방송되었던 영국 BBC 의 『텔레토비』 라는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과 그것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으로 입증된 바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이미 10 여 개를 넘는 수를 헤아리고 있었으면서도, 『텔레토비』 의 방영이 가져온 어린이들의 호응은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영국에서 제작된 『텔레토비』 는 방영 즉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곧바로 상업적 성공과 연결되어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선 곳에서 가져온 프로그램 하나가 우리 나라 어린이들에게 미친 이 커다란 영향.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제작되고 방영되는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비(非) 전문적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나라 방송사들이 제작하는, 혹은 수입하여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수(數)와 그것의 방영 시간이다.

현재 SBS, KBS, MBC 3 사의 방송사들이 방영하는 프로그램들 전체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 내외이다. 물론 방송의 상업성으로 인하여, 소비 가능 계층에 맞춰서 프로그램 제작의 비중이 주어지고, 따라서 프로그램의 수도 그에 좌우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실정이라고 해도 어린이 대상 프로그가 전체의 5%를 차지할 뿐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일부러 혹은 필요에 의해서 골라 보려 하지 않는 한, 시청 가능한 어린이 프로그가 거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정 내 주요 소비 층으로 어린이들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린이 프로그의 미미한 수(數)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송사들의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루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방영 시간이 30 분 이내인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대에(지금처럼 대략 2~3 시간 정도를 어린이 프로그램에 할애한다고 한다면,) 약 20 분 짜리 방송을 SBS, KBS1, 2, MBC 4 개의 채널이 알차게 방송을 한다면 하루에 최소한 대략 20~24 개 정도의 어린이 대상 프

로그래미 생기게 된다. 케이블 방송의 아동 혹은 교육 전문 채널을 배제하고도 이 정도 수(數)의 어린이 프로가 확보되어야만, 어린이들은 그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되며, 그 선택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는 수(數)의 어린이 프로가 생기려면, 그 내용과 방송사의 편성 노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적당한 수(數)의 어린이 프로그램 확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의 방영 시간이다. 아침 시간에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은 KBS1의 『TV 유치원 하나, 둘, 셋』 뿐인데, 미취학 아동 대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른 시간이라 할 수 있는 7시 45분에 방영된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기상 시간과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등교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 방송을 보고 프로그램이 전달하는 내용을 차분히 습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 아침 시간 어린이 프로의 이러한 문제는 20년 넘게 아침 시간대의 어린이 프로로 자리 매김 해 온 MBC의 『뽀뽀뽀』가 얼마 전부터 오후 4시 5분에 방송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아침 시간을 고집해 온 전통 있는 어린이 프로인 『뽀뽀뽀』가 아침 프로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오후 시간으로 옮긴 것은 그것이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더욱 현실적인 시간대라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오후 4시라는 시간도 어중간하고 적절치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오와 저녁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4시라는 시간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과외 활동이나, 바깥 활동을 하는 시간이다. TV 정규 프로가 막 시작되는 시간인 4시는 아동들이 TV 앞에 다가와 앉아 있기엔 너무 이른 시간인 것이다. 방영 시간대가 적절치 못한 것은 이 프로들만이 아니다. 위의 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도 오후 4시와 7시 사이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프로들이 방송되는데, 그 중간마다 뉴스를 비롯하여, KBS 『전국은 지금』, SBS의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MBC의 『생방송 화제집중』 등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켜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어린이들이 어떤 채널을 택하더라도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광고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시간대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각 방송사들은 구성 갖추기 식의 어린이 프로 편성이 아닌 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아이들의 평균적인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고려하고, 요즘 아이들의 과외 활동 패턴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유치

원이나 학교의 하교시간까지도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간대 편성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시간대와, 충분히 선택 가능할 만큼의 프로그램 수량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될 게 뻔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어린이 프로의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순서가 두 번째일 뿐이지, 실상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그것이 다루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꼽아지는 문젯거리일 것이다.

현재 방영되는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KBS2 의 『파워 디지몬』, 『데블 파이터』, SBS 의 『드래곤 볼』, 『우리는 챔피언 WGP』, MBC 의 『도라에몽』 등 애니메이션이 대부분이다. 물론 간단한 그림이 곁들여진 만화는 아이들에게 흥미 만점인 프로그램일 테지만, 잘 마른 스펀지와 같은 아이들이 보는 데로 흡수할 그 애니메이션들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섬뜩하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왜냐하면, 현재 TV 에서 방영 중인 대부분의 애니메이션들은 선(善)과 악(惡)의 대결 구조가 주를 이루면서, 전형적인 권선징악(勸善懲惡) 결말을 가지는데, 선(善)이 이른바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주인공들의 복장이 무척이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평화'라는 명분을 위해서라면 폭력이 정당화 될 수도 있다, 혹은 없다, 라는 어른들 방식의 해석과 논의가 단순한 아이들의 사고에 강요되는 위험성도 문제거리와, 당장 그림으로 보여지는 무기들이며, 폭과 장면들이며, 몸싸움 장면들만으로도 어린이에게 보여지는 만화 전부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드래곤 볼』 과 같은 애니메이션은 처음 책으로 출판되었을 때, 중학교 이상 나이의 학생들이 읽어도 폭력적이라고 걱정이 될 만한 만화였다. 또한 TV 에서 보여지는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 특히 여성들의 모습이 지니는 선정적인 모습은 어른들의 눈으로 보아도 꺼려지는 경우일 때가 다반사이다. 반라의 노출이 예사인 만화를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과연, TV 앞에 앉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난무하는 만화를 단지, TV 가 어린이 프로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아이가, 우리의 아이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묵과 할 수 있겠는가?

어린이 프로그램, 특히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은 그 제작 주체의 문제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상영되는 만화들은 대부분이 일본

에서 수입된 것들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익혀야 할 한국 정서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만화들은 은연중에 일본의 문화적인 지배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행사하고 있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일본 만화를 보고자란 우리의 아이들은 자라서도 서슴없이 일본 만화를 찾고, 읽고, 따르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일본 전체의 문화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불길한 상상만으로 그칠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체 제작물이 부족하고, 설사 있다 해도 그 내용이나 구성이 부실한 우리의 현실로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수입된 애니메이션을 우리의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고, 새롭게 제작할 수 있는 여건과 기술이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남이 만들어 놓은 만화에 저작료를 지불해가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폭력과 선정성의 마약을 제공할 것인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또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정서를, 적절한 소재로, 그리고 알맞은 구성과 올바른 방법으로 소개하고 교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제 어린이가 볼 수 있는 프로를 어른들의 시각에서 선택하고, 어른들이 추천하여 아이들에게 전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물론, 여전히 어린이의 정서를 관장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문화 습득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지만, 더 이상 어린이의 선택 기회가 무시된 시대는 아닌 것이다. 이에 어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어린이들은 그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이 가진 눈 높이에서 습득하고 학습할 것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호기심 유발로 어린이의 선택을 독점하는 데에만 급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TV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질 프로그램이라면, 웅당 어린이의 '어떠한 선택'에도 해(害)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선택은 어린이의 몫이지만, 이미 말한 대로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끄는 몫은 여전히 어른들의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이제까지의 어린이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 된 새롭고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개념의 중심에 어린이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제작의 출발점에 또한 어린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린이의 눈 높이에 맞춰진, 그러

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웃음과 교훈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건전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시 강조하건대, 그야말로 어린이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이 시급하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 후엔, 우리만의 노하우(know-how) 축적이 필수적인 과제로 남는다. TV 방송사 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고(高) 예산 투자를 포기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물론, 지금에 이르러 아무리 어린이의 사회적 중요성과 미래의 주역임을 강조한대도 방송사들의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저(低) 예산으로도 유익한 어린이 프로를 제작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셈이다.

그 노하우(know-how) 축적의 첫 단계는 어린이의 눈 높이를 맞추고,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 어린이와 키를 맞췄던 눈 높이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 양상을 꾸준히 거둬들이고 연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원시안(遠視眼)을 지닌 어른들의 투자와 실행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인형극, 어린이 드라마들이 있긴 하지만, 이미 우리 어린이들의 흥미 밖으로 내쫓겨진 지 오래이다. 그 이유는 과거와 비교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정신 연령을 방송 프로그램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습득하게 되는 세상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하나, 어른들은 이미 어린이들의 표현 방법이나,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잊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영국에서 제작된 『텔레토비』라는 프로를 예로 들어보자. 이 프로그램은 영국 BBC 와 어린이 전문 프로덕션 랙돌(Ragdoll)이 유아들의 행동발달단계에 따른 행동과 언어, 사고방식 등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작해 낸 것이다. 치밀하게 계산된 음절 사이의 시간과, 화법에 있어서의 빠르기, 정확한 억양, 같은 어구의 반복 등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청각, 시각, 지각의 메커니즘에 가까이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린이들이 이해 가

능한 적당한 말하기 속도와, 기억 가능한 반복 횟수 등을 통계적으로 연구하여 불과 10 여 분의 어린이 프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어린이들의 정서를 고려한 파스텔 톤의 색조를 중심으로 하여 밝고 환한 분위기와 충분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하학적 모형들이 동원되고 있다. '텔레토비'라는 존재의 소재 역시, 국적이나, 인종,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중성(中性)적인 존재를 등장시킴으로써 어린이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1 세에서 5 세 사이 정도의 영유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과학적 통계와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집약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 프로그램은 사회성 기르기, 숫자세기, 색감 기르기, 만들기 등 일상생활을 다룬 내용을 통해 아이들이 놀이와 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린이 프로들은 어떠한가? 어린이 드라마나 만화의 소재는 여전히 같은 내용의 반복일 뿐이고, 극의 구성이나,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10 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여전히 피아노 줄에 매달린 우주 용사의 어설픈 무술 시범이 보여지고, 어린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와 어구들이 어른이 말하는 속도와 별 차이 없이 구사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또한 정교하지 못한 그림은 둘째 치고, 적당한 줄거리나 소재를 찾는 일부터 힘든 상태이다. 어디 세심치 못한 구성과 그림만이 문제겠는가? 어린이 프로들 속에 담긴 언어와 표현들은 이미 어린이의 것이 아니다. 어른들이 듣기에 민망한 저질스러운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놀이의 의미조차 가지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인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의 열악한 여건과 기술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고개 숙여 좌절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노력은 느린 속도지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자체 촬영 화면은 아니지만, 동물들의 생태를 전문 성우의 내레이션으로 소개하는 KBS1 의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나, 다소 늦은 시간에 방영되는 프로이긴 하지만 어른들도 따뜻한 웃음을 얻을 수 있는 KBS2 의 『TV 동화 행복한 세상』 등의 프로그램들은 우리 방송계의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 제작 미래가 그리 어둡지 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혹시, 매 주 목요일 오후 4 시 30 분, 『뽀뽀뽀』 이후 방송되는 MBC 의 『내 친구들의 세상』 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가?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생활해 가는 어린 친구들의 모습이 그들 또래의 소개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스튜디오 촬영에 머물지 않는 현장감 있는 취재를 곁들임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 하나, 매주 금요일 5시 5분, KBS2의 『어린이 뉴스 탐험 505』는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되는 커다란 이슈나, 기본적인 상식을 자문위원의 도움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고, 박람회나 문화 참여 소식을 어린이 리포터들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또한 경제 용어나 정치 용어들을 그림과 음향 효과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어린이 전문 프로로서 그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 노력의 결실로서 좋은 프로들을 하나 둘 만들어 내고 있다. 다만, 방송 정책상의 무관심과 열악한 제작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에 전제되는 명확한 개념 정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3. 결론

어린이들의 교육은 더 이상 가정에서만 책임지고, 한계 지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쾌속 성장을 이루는 사회의 모습처럼 아이들의 생각도 나날이 그 키를 더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성숙해진 어린이들의 '사회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TV 또한 성숙된 사회의 문화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주자로서, 어린이들을 단순히 상업적 소비자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능력 발달의 도우미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만 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방송(EBS)이나, 케이블 방송에만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책임이 의무 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TV는 그 동안 가정에만 전가된 채, 방송에서는 소외되었던 어린이의 교육과 사회화 의무를 함께 나누어야 함을 각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TV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어린이 프로의 비중을 높이고, 적절히 방송 시간대를 안배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작 과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TV가 가지는 어린이에 대한 시각의 변화일 것이며, 그 시각 변화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어린이와의 동등한 눈높이일 것이다.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놀이의

즐거움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TV의 조속하고도 꾸준한 노력을 기대한다.